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신경규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은 인도에서 20여 년 사역한 선교사이면서 은퇴 이후 24년간 열 다섯 권의 책과 120여 편의 글을 남긴 위대한 선교학자이기도 하다. 탁월한 에큐메니스트로도 유명한 그는 최근 그의 선교적 교회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선교학과 교회론에 있어서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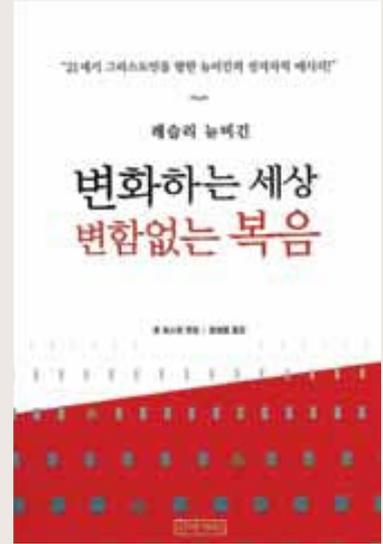
본 저서는 레슬리 뉴비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폴 웨스턴이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리 발견하기』(1994년)라는 강연과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소망』(1995년)이라는 두 개의 강연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제1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제2부에서 지식의 문제, 권위, 창조, 구원, 종말 등의 교리를 서술한 후, 제 3부에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 기독교 신앙과 세계 종교, 복음과 공공영역 등 과학과 타종교, 그리고 신앙의 개별성과 그에 대치되는 공공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뉴비긴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에 대해 삼위일체의 견지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

님은 그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강조하는 유대교나 심판을 강조하는 이슬람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노와 사랑이라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됨으로써 해결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고, 또한 아들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셨다. 예수는 아람어 '아멘'과 '아바'라는 단어를 통해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아이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혁명적 발상이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늘에 있는 단일체나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로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바르트, 몰트만과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제자도에 있어서 첫째, 우리의 세계관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켰고, 둘째 함의는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알려 주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18세기 유럽의 지성계는 기독교 신앙에 등을 돌리고 합리적 세속주의 신앙을 받아들여 인본주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역사관을 채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는 성경에 묘사된 예수가 역사적 예수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뉴비긴은 이것을 전형적인 자만심의 발로라고 말한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예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가 살았던 1세기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쿰란공동체 같은 금욕주의자 등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히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가 율법에 정통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인정하셨고, 사역의 시발점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나타났다는 점이 이후에 정립된 삼위일체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예수의 가르침, 치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와 우주의 궁극적인 전환점을 이루셨다. 그는 우리 세계의 일부로 왔으나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신 것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징표이자 맛보기이다. 이제 교회는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고 속죄하는 예수의 사역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

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의 속죄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주제를 이어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부'에는 이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저자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임한 성령과 그의 사역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를 우리와 동시대인으로 만들어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내면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과 공적 사실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2부 신앙과 교리 부분에서는 먼저 지식의 문제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각각 별개의 영역에 둔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는 의심을 믿음보다 더 정직하게 보는 이상한 신념이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는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심이 치열한 고뇌요,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신앙이 먼저이고 의심은 그 다음이다. 물론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의심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신념 체계인 '개연성 구조'라고 하는 뿌리 깊은 보수주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저자는 의심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오늘날의 사고방식이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앎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순전히 객관적인 지식이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앎의 전통을 배우는 견습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언어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관행과 행습 때문이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비판의 원칙'은 확실성에 못 미치는 것은 모두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데이비드 흄은 데카르트가 만든 원칙을 대부분 무너뜨렸고, 임마누엘 칸트는 확실한 근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실재를 알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니체 역시 그동안 유럽 문화가 추구해 온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필연적으로 더 이상 참이나 거짓, 선과 악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의 믿음이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객관적 안목은 없다. 그것은 거대한 망상일 따름이다. 이러한 관찰자의 관점은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안목이고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교만의 발로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다. 우리의 인식구조는 삼중적인 앎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차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수많은 부차적인 실마리들을 합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 분리된 조각들 속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찾게 된다. 이 발견하려는 열정이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실재를 인식하는 것은 의미에 대한 감각, 자신의 발견을 공표하여 인정받는 일, 그리고 그 이후 진리는 또 다른 진리로 이끌리게 됨으로써 지식은 확산된다. 인간에게는 사물을 안다(wissen)는 것과 사람을 안다(kennen)는 두 가지 종류의 앎이 있다. 사물인 경우 대상에 대한 행위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사람인 경우에는 대상이 곧 주체가 되며 나에게 완전한 통제권이 없다. 여기서는 이차적인 의미의 믿음을 사용한다. 신앙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은 사랑의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인간을 조망할 때에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2세기에 걸친 근대적, 과학적인 세계관은 전형적인 환원주의의 모델이었다. 인간을 적절한 차원보다 낮은 논리적 차원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이다. 권위에는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외적 권위에는 성경, 전통, 이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들의 메시지이며 성경 그 자체이다. 신앙적 이성인 교회의 판단에 따라 정경이 형성되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1,400년 동안 교회는 전통의 기반 위에 신앙을 지켜왔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한 것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되고 계몽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 신앙은 이성적 논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계몽주의의 비판적 사고가 성경해석에 도입됨으로써 자유주의적 역사비평학이 도입되었다. 성경비평학은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목적이 본문의 현대적 적용에 있으므로 선교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은 성경의 축자무오와 객관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이라는 객관성과 성경해석이라는 주관성의 문제는 성령에 의해 해결된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1) 사물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2) 창조된 세계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는 점, (3) 온 세계가 인류의 집으로 창조되었다는 점, (4) 인류 가족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점, (5) 하나님께서 매일 스스로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창조 이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이 극단적인 견해인데 기독교는 제3의 길을 택하고 있다: (1) 피조세계 속에 질서, 패턴 규칙이 있다. (2) 인간이 저야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있다. (3)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특히 이 책의 제10장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만일 우주가 어떤 목적을 지닌다면 그 목적을 아는 존재가 그것을 밝혀 줘야만 그것을 알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서는 수십 년 동안 선교 현장과 신앙적 순례 길을 걸으면서 저자가 신앙을 갖기 이전에 배운 서구적 사상과 사유를 체계적이면서도 호소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그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복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스트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일치를 견지하였다. 이 책은 그의 일생에 걸친 사상의 여정이 녹아있어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기독교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개론의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하고 싶다.



신경규 서울대 경영학과(BBA)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수료했으며, 고려대 대학원과 부산대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과 경제학 박사과정을 과정을 수료했다. 장신대 및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도미하여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선교학박사)를 수료하였다. 귀국하여 현재까지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